

# 전주시, 2023 아시안컵 유치 도전장

### AFC, 현장 실사 나서 시, 시민들 높은 축구열기 U-20 월드컵 경험 등 어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2002 한·일 월드컵과 축구 꿈나무들의 잔치인 '2017 FIFA U-20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러낸 전주시가 2023 AFC 아시안컵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도전장을 냈다. 오는 6월 1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이 열리는 전주는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FC의 연고도시이자 지난해 U-20월드컵 개최국이 열리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구도시이다. 전주시는 24일 '2023 AFC 아시안컵'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AFC(아시아축구연맹) 실사단에게 시민들의 축구 열정을 바탕으로 아시안컵대회 개최도시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AFC의 이번 현장 실사는 대한민국 8개 후보도시 가운데 고양, 부산, 서귀포,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실사 관련 설명회에서는 아바즈벡 베르디클로프 AFC 아시안컵 팀장을 비롯한 7명의 AFC실사단과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전라북도축구협회와 전주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

운데, 경기장 시설 및 대회 운영 준비 상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실사단은 또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 등의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관중 홍보와 시설물에 대한 정비 분야 등 현장 준비상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특히, 시는 이날 AFC실사단에게 전주가 프로축구 K-리그 5회 우승과 ACL 2회 우승에 빛나는 전북현대축구단의 연고도시로 시민들의 축구열기가 매우 높다는 점과 2002 FIFA 월드컵과 FIFA U-20 월드컵 유치경험 등을 유치전에 뛰어난 다른 도시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적극 어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세계 최초의 도심형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의 역사·문화 자원들도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AFC 실사단의 전주 방문을 환영한다"라며 "개최도시로 확정돼 오는 2023년에 전주에서 시민의 뜨거운 함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중국이 유치에 뛰어들어 2023 AFC 아시안컵 개최국은 오는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F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후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개최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군산대학교는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산학연계 협력 기반 조성

### 군산대, 공항공사 군산지사서 지역사회 발전 협약

군산대학교는 24일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대학교와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 이성수 교무처장, 양현호 기획처장, 박인수 대외협력과장 및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의 최정수 지사장, 김명중 파트장, 김진민 노동조합군산지부장, 김창민 활성화담당 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골자는 ▲산학연계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실무경험 및 취업기회 제공 ▲전시·공연 개최 등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공동 진행 ▲산학연관 사업 및 연구과제 공동 참여 ▲양 기관의 기술 및 지식정보 상호교환 ▲기자재 및 시설물 공유 협력 ▲군산대학교 학생의 군산공항 견학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협력과 연계한 견학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깊히 하고, 군산공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반

### 원광대, 기업실무자 마스터 과정 운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대학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기업실무자 마스터 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및 직무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채용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름 방학에 맞춰 이루어지는 '기업실무자 마스터 과정'은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진행하며, 방학을 활용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밀착형 취업 멘토링과 취업박람회 참여까지 원광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올인원 시스템'을 제공받아 2년 연속 참여자의 70%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초등학생 친환경 벼 모내기 체험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

남원 친환경쌀 직육면체들이 24일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모내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학교 내 고무화분으로 눈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모내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학교 내 고무화분으로 눈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학교 내 고무화분으로 눈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사진=남원시청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

### 전주시립 송천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아 발견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좋은 친구가 돼주고 있다. 전주시는 송천도서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강사료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

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송천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임마누엘 청소년 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후 활동과 도서관 탐방, 문화프로그램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래를 향

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청소년 인문예술 '두 번째 교실, 가지'의 주강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매주 만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들이 책을 매개체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비빔밥, 타이완 간다

### 시, 오늘 타이둥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 참가 홍보 나서

전주시가 타이완 타이둥시에서 개최되는 2018 타이둥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푸드인 전통 전주비빔밥 홍보활동을 펼친다. 시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일간 타이완 남부 타이둥시에서 열리는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현지 주민과 관광객, 슬로시티 연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슬로푸드인 전주비빔밥 시연·시식 행사와 함께 전주 음식문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제 슬로시티연맹 후보도시인 타이둥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슬로푸드 페스티벌은 타이완 최대 규모의 푸드 페스티벌로, 타이둥시를 비롯한 타이완 내 각 지역의 전통음식과 세계 각국 슬로시티 연맹 도시

에서 초청된 대표 슬로푸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시는 전통방식으로 전주비빔밥을 조리해오고 있는 업체와 함께 현지에서 전주 슬로푸드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미식도시 전주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연계한 전주관광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는 세계가 인정한 미식도시이자, 전주비빔밥으로 대표되는 슬로푸드의 가치도 지켜온 국제슬로시티"라며 "이번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미식도시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외국인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